

# 어천-윤리 구간

## ■ 코스 지도



##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2	학래정	어천마을 학래정 이야기	민속자료
3	어천마을	어천마을 이야기	마을
4	헬기장	웅석봉의 이야기	민속자료
5	웅석봉	산청주변의 호랑이와 곰사냥에 대한 실화	민속자료
6	달뜨기능선	빨치산 이야기	역사
7	임도	걷기명상 소개	여행
8	암자	지리산의 인연	여행
9	청계리	청계마을과 신행당 고개 이야기	생태
10	정당매	매화와 선비 이야기	민속자료/ 생태
11	단속사지	세상과 끊겼던 단속사 이야기	역사
12	다물민족학교	매촌초등학교의 폐교, 학교만들기	마을

## 1. 구간 소개

*“나는 지금 어느 길 앞에 서 있다.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서 무언가로부터 속박되어 있던 나 자신이 다시 자유로워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길을 걷고 있노라면 그 동안 저 깊은곳에 묻혀 있던 소망과 자유에 대한 꿈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살다보면 좀처럼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가는지, 왜 선의로 베푼 일이 악의로 돌아오는지, 왜 아무도 진심을 들여다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해답은 도망가고 생각은 실타래처럼 엉켜만 간다.

그럴 땐 이렇게 길을 떠난다.

이 길은 웅석봉을 타고 넘는다.

이 길을 다녀온 누군가가 말했다.

지루한 길이라고. 사람냄새 나는 시골마을도 이 길엔 많지 않다고.

임도를 따라 한없이 산을 올라야 하는 힘든 길이라고.

하지만 등산을 즐기지도, 평소에 별다른 운동도 하지도 않았지만 감히 이 길을 택한 것은 오히려 그 때문이다.

끝없이 걷기만 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면 이 길은 충분하다.

지금은 마음이 사막처럼 황량하지만, 이 여정이 끝날 무렵엔 어느 오아시스에 도달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2. 학래정

밥때가 가까워 오는데 마땅히 끼니를 때울 곳이 보이지 않는다. 초콜렛이라도 넉넉히 챙겨올 걸,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다. 경사진 아스팔트길은 지친 다리를 더욱 매정하게 밀쳐낸다. 길은 끝나지 않을 듯 계속된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걸까, 멀리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신다. 지금으로선 웃으며 인사할 마음의 여유도 없다. 귀찮은 마음에 못 본 척 지나치려는데 할머니가 나를 불러 세운다.

*“어디 가는 거여? 아, 돌래길 왔나 보구만.”*

식사전이면 밥이나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잠시 머뭇거린다

‘그래, 어차피 들고 도는 길 바쁠 것 없다’ 싶어 묵묵히 따라가 본다. 당도한 곳은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한옥이다. 한옥이라고는 하지만 곱게 다듬은 소나무나 대문까지 뻗어 올라간 층층계단이 예사롭지 않다. 제사를 모시는 사당인가 했는데 대문 위로 ‘학래정’ 이라 정성들여 쓴 현판이 보인다. 학이 찾아드는 정자라, 풍류가 느껴지는 이름이다. 대문을 들어서 보니 정자라기 보단 살림집의 모습에 더 가깝다. 어느새 할머니가 안에서 밥상을 차리신다. 거동이 불편하신지 앉은 채 이리저리 반찬을 놓으시는 모습에 죄송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속도 모르고 위장이 요동을 친다.

손주 같은 젊은이가 반가우셨던 걸까, 열심히 밥숟갈을 놀리는 동안 할머니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신다. 이곳은 경주 최씨 집안의 ‘정자’라고 한다. 1943년에 주인 할아버지의 증조부가 지으셨는데 어려웠던 시절 탓에 완성되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고 한다. 정자를 완성한 직후에 안타깝게도 증조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의 노력 덕분에 지금도 문중 사람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런 저런 소식도 나누는 모임을 가진다고 하신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타임머신처럼 나를 그 옛날의 학래정으로 돌려놓는다.

대문에서 바라다 보이는 앞산이 학이 날아가는 형상을 하여 ‘학래정’이라 이름 붙였다는 이 정자는 소나무가 그득히 들어선 작은 길을 끼고 있었다. 계 중에는 아름답리 큰 소나무도 있었는데 늘어진 가지가 만들어 낸 그늘이 무려 40평에 달했다. 학이 내려앉는 곳이라 하여 정성들여 키웠는데 어느 날, 송충이가 끊어서 죽고 말았다고 한다. 요새 같으면 살렸을 텐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지키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할머니의 눈엔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척박한 산골, 농사짓기가 어려워 숲을 구워 연명해야 했던 이야기. 쌀도 보리도 콩도 귀해서 친정에 갈 때마다 갖은 곡식들을 몰래 싸들고 와야 했다는 이야기. 비오는 새벽,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나 혼비백산했던 이야기. 스물한 살에 이곳으로 시집을 와 5남매를 키우셨다는 할머니의 사연은 어천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산청으로 장을 보러 갈 때는 줄배를 타고 아래쪽 강을 건너야 했는데, 따로 사공도 없이 줄을 당기고 갈대도 붙잡고 건너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이젠 큰 다리가 놓였으니 삶이 좀 편안해지만 서툰 짐작을 해 보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어둡다. 다리가 생기면서 땅값이 갑자기 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땅을 팔고 떠나버렸다고 전하는 할머니의 입가에 씩씩함이 감돈다.

할머니의 입담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어느새 밥 한 그릇이 똑딱 비워졌다. 몇 번이고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나선 어천마을. 그 길옆의 별장과 펜션에 하나둘 불빛이 밝혀진다.

### 3. 어천마을

풍경에 취해 이정표를 놓쳤던 것일까,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헤매다 물어 물어 겨우 다시 둘레길을 찾아냈다. ‘어천마을’. 장승처럼 서 있는 이정표를 다시 마주치자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린다.

이제서야 갈증도 느껴진다. 잠깐 목이라도 축일 곳이 없을까 하는데 마침 민박집이 보인다.

둘레길 민박에선 잠만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한 요기거리를 부탁드릴 수 있다니, 잠만 쉬었다 가기로 한다.

대문으로 들어서니 주인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으시며 덩싹 막걸리부터 꺼내놓으신다. 살얼음이 낀 막걸리한 잔에 피로가 녹는다. 길을 잃고 방황했던 사정 얘기를 들으시더니 할아버지는 혀를 꼴꼴 차신다.

*“우천은 저 건너 마을이 우천이라, 저는 산청이고 여는 단성이거든. 예전엔 저짜 마을이 조금 있었어. 여 바로 다리 있지, 또랑 안 있든갑다. 요쪽은 단성면이고 저쪽은 산청읍이라. 거는 우천이고, 여는 어천이라. 여기는 고기잡을 여자 내 천자라.”*

아, 그랬구나. 길을 찾는답시고 비슷한 이름의 다른 마을로 향했던 거구나. 머리를 쥐어박는다. 그건 그렇고, ‘고기잡는 마을’ 이라니, 산골마을치곤 참 독특한 이름이다 싶다.

*“(04:20~05:17) 옛날에 고기가 많이 잡혔지. 가재 같은 거. 뱀장어, 피리, 메기, 꺾지기 이런 거 도랑에 굉장히 많이 놀았어. 쏘가리도 놀았고, 가재는 바글바글했고, 고동은 잠깐 나가면 어둑어둑할 때는 한발때기 잡아서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된 거는 내가 한 열 서너 살까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05:27~05:34) 댐 생기고 나서는 고기가 문 올라와. 엄서 인자.”*

아, 그랬구나. 민물고기들로 냇물이 넘쳐 났을 그 옛날의 모습이 ‘어천’ 이란 이름을 선사한 것이구나. 하지만 할아버지의 연세가 여든이 훌쩍 넘으셨다니 그것도 70년 전의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어천’ 이라는 이름에 얽힌 사연을 하나 더 덧붙이신다.

*“(06:07~06:49) 요새 발달이 되가지고 저수지가 생기고 저수지가 없는 데는 물을 기계로 푸고 이리 사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가뭄나면 농사를 못지었거든. 여기는 계곡물이 흘러서 좋으니까 농토는 얼마 안되도 물이 있으니까 여는 농사를 짓거든. 마를 날이 없거든, 논이.”*

흐르는 계곡물이 적셔준 땅을 논으로 일구고 짬짬이 고기잡이로 부식거리를 마련했을 어천마을의 풍경이 떠오른다. 척박한 산골마을을 채운 소박한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하지만 산골마을의 삶이 마냥 녹록하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땅에서 나는 쌀과 물에서 나는 고기로 주린 배는 채울 수 있었지만 이런저런 생활의 필요를 채우려면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장작을 패고 숯을 구워 도시 사람들에게 팔고, 대나무로 바구니 같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자식들 교육이라도 시키고 옷이라도 사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예전 이야기긴 하지만, 시골살림이 빠듯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리라.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소일삼아 민박을 하고 계시지만, 겨울엔 보일러 때는 기름값이 무서워 방을 내어주지도 못하신다며 노부부는 민망한 듯 웃음을 지으신다. 삶의 고단함을 친구 삼아 80 평생을 견뎌왔건만, 아직도 주름진 얼굴에 남아있는 웃음의 흔적이 감사할 따름이다.

## 4. 응석봉 헬기장

“지천에 널린 게 호랑이’ 라는 말 들어봤어요?”

응석봉 능선길을 걷느라 땀이 말리고 섰는데 웬 할아버지가 말을 건넨다. 마을 어르신인가. 하지만 농삿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기엔 어르신 의 풍채가 남다르다. 작은 수첩에 펜을 쥔 노신사는 은퇴한 신문기자라며 자신을 소개한다.

“예전엔 이 일대에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대요.”

노신사가 보여준 수첩에는 아주 오래된 신문조각이 붙어 있다. 1921년 7월 16일, 거의 백 년 전의 기사다. 이 근처 어느 산자락에서 큰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있는 호랑이를 포수가 추격하여 잡았는데, 무게가 무려 백관 이상이 나갔으며 당시 돈으로 오백 원에 팔았다는 기사다. 1관이 3.75kg쯤 되니, 잡힌 호랑이의 무게는 족히 400kg은 되었을 테다. 어른 네댓 명을 합친 정도의 덩치를 가진 호랑이가 이 길을 어슬렁 거렸다니,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다.

“당시에 1원이 지금으로 치면 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지요. 그럼 그 날 잡은 호랑이가 지금 돈으로 500만원 정도에 팔렸다는 거죠.”

사냥꾼들에게 그런 호랑이는 복권과도 같은 존재였으리라. 그래서, 이 일대에 호랑이나 곰을 잡겠다고 사냥꾼들이 득실땀했다고 한다.

“예전엔 서울 사대문 안에도 호랑이가 출몰했어요. 옛날 기록을 보면 창덕궁 안에서 호랑이가 새끼를 쳤다는 기록도 있어요.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구요.”

선뜻 믿기 힘든 얘기다. 그럼 그 많던, 그래서 지천에 깔려있던 호랑이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호랑이들이 수난을 당하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때부터라고 하지요. 호랑이가 살지 않는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호랑이를 보고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일본인들은 호랑이를 잡는 것이 조선을 제압하는 거라고까지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를 풀어서 야생 호랑이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죠. 게다가, 조선 정부도 사람들을 해치는 맹수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사냥꾼들을 부추겼다고 해요. 그 때 죽임을 당한 호랑이가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00마리가 넘었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 야생호랑이가 7,000마리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의 호랑이가 그 일로 사라진 거죠. 호랑이뿐만 아니에요. 곰, 늑대, 표범까지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야생동물들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얼마 전 보았던 뉴스 기사가 생각난다. 농가에 피해를 주는 야생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어느 지방 군청에서 직접 포획단을 꾸렸다는 이야기였다. 화면에는 피 흘리며 죽은 멧돼지 앞에서 선, 공기총을 든 포획단의 모습이 비춰졌다. 사람과 가축을 해치고 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을 터이다.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야생의 땅에서 먹이를 찾을 수 없어 마을에 내려오는 멧돼지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인간이 망쳐버린 자연이 인간에 반격을 가하고, 그 앞에서 인간은 다시 총을 빼들며 자연을 파괴하는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호랑이가 사라져 버린, 그리고 머지 않아 멧돼지마저 사라져 버릴 산허리를 바라보던 시선이 나도 모르게 수그러진다.

## 5. 응석봉

미끄러운 길 탓에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손바닥과 등줄기에 땀이 맺힌다.

언뜻언뜻 불어주는 한 줄기 바람이 고맙다. 바람을 맞으려 계속 숙인 채 걷던 고개를 든다.

모르는 새 탁 트인 풍광이 펼쳐져 있다. 발만 보며 걸음을 재촉했던 시간이 아쉬워진다. 잠깐 멈추어 서서 경치를 눈 속에 담는다. 발아래 푸른 경호강이 흐르고 있고 그 곁으로 시원스레 뚫린 대진고속도로가 나란히 달리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낸 물길과 인간이 만들어낸 찾길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의외로 제법 조화롭다.

동쪽으로는 황매산이 그 높이를 뽐내고 있고 북쪽으론 폭 꺼진 밤머리재가 오른쪽으로 왕산과 필봉산을 끼고 있다. 밤머리재에서 시작한 능선은 왼쪽으로는 도토리봉, 깃대봉, 새봉, 중봉을 타고 흘러 천왕봉에 이른다. 천왕봉에서 그 정점에 오른 우아한 곡선은 씨래봉을 타고 다시 흘러내린다.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대는 산의 물결에 현기증마저 나려고 한다.

부지런히 응석봉 정상을 향해 발을 옮기는 등산객 한 무리가 곁을 지나간다. 무리 중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소리친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응석봉 꼭대기에서 천왕봉을 올려다봐야 제대로 지리산을 구경하는 거라구요.”**

웁은 말일 듯싶다. 이곳 경치가 이 정도인데 해발 1,000미터가 넘는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과연 어떠할까. 응석봉은 이름 그대로 풀면 ‘곰바위산’이다. 꼭대기에서 놀던 곰이 가파른 바위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만큼 웅장한 산세를 자랑한다.

하지만 거칠고 남성적인 걸모습 속에는 실골, 딱바실골 같은 이름 곱고 수려한 계곡을 품고 있다.

응석봉을 담장 삼아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산청 사람들이 부러워진다.

길을 벗어나 응석봉 정상에 올라볼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다시 길을 걷는다.

임도가 길게 이어진다. 별목한 통나무를 나르기 위해 만든 도로다. 60년대까지도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낸 탓에 응석봉은 완전히 험벗었다고 한다.

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이 산에 동지를 틀었던 크고 작은 동물들도 함께 응석봉을 떠났으리라.

하지만 다시 자라난 풀과 나무들 덕에 산은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곳곳에 들어선 참나무 숲은 이미 제법 울창하다.

옛날 응석봉의 생기를 앗아갔던 이 길이 다시금 생명을 키우는 길로 거듭나기를.

쿵쿵 힘찬 발걸음으로 이 길을 격려해본다.

## 6. 달뜨기 능선

하늘을 도화지 삼아 길게 선을 그어놓은 듯 능선이 지나간다. 웅석봉 아래 헬기장 건너 봉우리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마근담봉, 감투봉, 이방산의 산등성이를 이어가는 이 거대한 능선을 달뜨기 능선이라 불린다.

‘달뜨기’는 달돋이를 북한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지리산 자락에 어둠이 내리면 저 능선을 너머 어스름하게 찾아드는 달빛. 그 달빛은 빼곡한 마천루 사이로 차갑게 들이치는 도시의 달빛과는 다르다. 지리산에 돋은 둥글고 푸근한 달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지금은 이렇게 낭만적인 감상을 선사하고 있지만, 6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달뜨기 능선은 고독과 그리움이 뒤섞인 가슴먹먹한 이름이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무렵, 남북간의 크고 작은 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북의 이념에 동조하며 남쪽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했던 사람들, 소위 빨치산들이 마지막으로 찾아든 곳이 바로 지리산이었다.

*"동무들! 저기가 달뜨기요. 이제 우리는 지리산에 당도한 것이요!"*

*눈이 시원하도록 검푸른 녹음에 뒤 덮인 거산이 바로 강 건너 저편에 있었다. 달뜨기는 그 옛날 여순사건의 패잔병들이 처음으로 들어섰던 지리산의 초입이었다.*

*남부군은 기나 긴 여로를 마치고 종착지인 지리산에 들어선 것이다. 3년여의 그 멀고 험난했던 길을 떠나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1천 4백의 눈동자가 일시에 그 시퍼런 산자락을 응시하며 "아아!" 하는 탄성이 조용히 일었다.*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듯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달뜨기…… 남부군 총사령관이었던 ‘이현상’이 ‘지리산에 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했던 빨치산의 메카, 지리산에 우리는 마침내 당도한 것이다. 나는 형언하기 어려운 감회에 젖으며 말없이 서 있는 녹음의 산등이를 났을 잃고 바라보았다. 지리산아, 이제 너는 내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주려느냐?’*

언젠가 읽었던 빨치산의 수기가 생각난다. <남부군>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글은 경호강 맞은편에 서있는 웅석봉을 바라보며 빨치산 부대가 느꼈던 감격을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하지만 지리산에 찾아든 빨치산의 운명은 결코 녹녹치 않았다. 빨치산들 앞엔 이념을 건 전쟁 이전에 생존을 위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토벌대의 눈을 피해 마을로 내려가 입고 먹을 것들을 구해와야 했던 것이다. 부족한 먹거리에 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이면 뺨속까지 찾아드는 산바람에 바들바들 떨었을 그들. 전사이기 이전에 연약한 인간이었을 빨치산들은 저기 보이는 능선 너머로 떠오르는 달을 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들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맺히는 눈물을 참아내느라 이를 악물었으리라.

미처 달래어지기도 전에 역사 속으로 잊혀져버린 아픔들.

매일 밤, 저 달뜨기 능선 너머로 떠오르는 달만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다.

## 7. 걷기명상, 행선

한참을 걸어도 별다른 볼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숲, 끝나지 않을 듯 놓여있는 길.  
걸음은 지루해지고 잡생각들이 찾아든다. 털어버리자고 떠나왔지만 일상의 고민거리들은 이곳까지 따라와 발목을 붙잡는다. 불면의 밤, 한 마리 두 마리 양을 세듯, 걷는 걸음을 세어보기로 한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들어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바닥에 놓는다.  
'뚫-나아감-놓음'의 리듬이 반복된다. 다리를 들 때, 나아가고 놓을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이 각각 다르다. 앞만 바라보던 시선을 발끝으로 향해본다.  
발이 움직인다.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오르고 나아가고 바닥에 닿는다.  
머리가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도 발은 용케도 돌부리를 피하고 굽은 길을 알아서 휘어간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동작들을 자세히 보니 왠지 신기하게 느껴진다.  
불교의 수행법 중 행선(行禪)이라는 수행법이 있다.  
앉아서 하는 좌선위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가끔 졸음이 오거나 피로로 심신이 힘들 때 움직이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정한 장소를 조용히 걸으면서 경전을 외우는 동시에 자신의 몸과 대화를 하면서 걷는다고 한다.  
몸과 대화를 시작하니 짙어진 배낭의 무게에도 발걸음은 사뭇해진다. 한 발 한 발에 돌과 흙의 감촉이 느껴진다. 땅은 다리를 들어올릴 땐 발을 힘껏 밀어주었다가 발바닥을 놓으면 다시 가볍게 품어준다. 길과 한 몸처럼 호흡이 맞는다.

*나는 땅 끝까지 가 보았네.  
물이 있는 곳 끝까지도 가 보았네.  
나는 하늘 끝까지 가 보았네.  
산 끝까지도 가 보았네.  
하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네.*

어느 인디언 부족의 노래가 입에서 흥얼거려진다. 흐르는 바람이 느껴진다. 어디선가 산새소리가 들려온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내게로 들어와 머물다 나간다. 모든 것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지만 어지럽지도 혼란스럽지도 않다. 그저 고요히 함께 있을 뿐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 닥칠 걱정들도, 수많은 고민들도 그저 머물렀다 나가는 것이리라.  
여전히 산길은 마을길처럼 다채로운 풍경과 치열한 삶의 흔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순간 내 안의 나와 대화할 수 있어 이 길에 감사한다.



## 8. 지리산의 인연

길을 따라 붉은색 표지판들이 늘어서 있다. 이 산중에서 무얼 알고자 이렇게 많은 표지판들을 세워 놓은 것일까. 자연스레 표지판을 향한 시선이 글귀를 읽어 내린다.

‘내가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진다.’ 앞뒤 사정 봐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강요하는 세상을 피해 떠나왔는데 이곳에서도 잔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일순간 마음이 불편해져 표지판을 외면하고 돌아선다.

걸음을 이어가는 마음이 무겁다. 고르고 고른 문구를 공들여 적어 이 깊은 산중에 세워두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 그런 정성도 몰라주고 괜히 울컥한 건 아닐까. 순간의 경솔함이 미안해져 다시 글귀를 곱씹어 본다. ‘내가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진다’. 아까는 맑아지라는 훈계가 보였는데 지금은 ‘나와 세상 사이의 인연’ 이 보인다. 가까운 사람들, 친숙한 물건들을 떠나 낯선 땅을 걷고 있는 중에도 나는 언제나 세상과 닿아 있다. 길 위엔 원하든, 아니든 언제나 수없는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돌레길 센터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던 돌레지기, 따뜻한 방을 내어준 민박집 주인 할머니,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길을 잃고 헤맬 때 도움을 주는 것도 예기치 않았던 인연들이다. 무심코 지나친 인연이 언제 어디서 다시 돌아와 흐뭇함을 줄 지 모르는 일이다.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으니 발아래 놓인 흙과 그 위에 선 나무, 그 걸을 지키는 낮은 풀들이 보인다. 사람만이 인연은 아니리라. 발 딛게 해주는 대지가 고맙다. 시냇물과 물웅덩이들, 우물과 호수들이 반갑다. 나무줄기와 그 열매들, 배시시 고개를 내민 약초들. 스스로를 양식으로 내어놓는 이들이 인연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인연이겠는가. 큰 바람, 작은 바람. 내리는 비와 올려퍼지는 천둥. 강렬한 태양과 은근한 달빛. 이 모두와 이어져있음이 새삼 느껴진다.

이곳에 줄지어 선 저 경구들은 이런 인연의 크기를 미리 알았던 이가 적어놓은 것이리라. ‘내가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세상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뜻은 아닐까. 세상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고, 슬픔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슬픔을 준다. 기쁨이나 지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터이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다. 우리가 세상의 신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파헤친다면, 언젠가 세상 또한 우리를 삶 밖으로 내동댕이칠 것이다.

어디선가 들었던 짧은 시를 주문처럼 되뇌어 본다.

*“내 앞에 행복,  
내 뒤에 행복,  
내 아래에 행복,  
내 위에 행복,  
내 주위 모든 곳에 행복.”*

어느새, 이 길이 행복한 인연으로 물들어 있다.

## 9. 신행당 고개

청계마을을 지나는 길. 호수라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듯 거대한 청계저수지를 지나친다.

저수지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로 호화로운 전원주택과 펜션들이 자리잡고 있다. 갑자기 유럽의 별장촌에 들어선 듯하다.

예전의 청계마을은 말 그대로 맑은 시내가 흐르는 작은 동네였다고 한다. 하지만 큰 저수지가 들어서면서 외지인이 몰려들어 오히려 농사는 더 어려워졌고, 소박하던 이전의 마을 풍경도 사라져버렸다. 시냇물 위로는 물레방아가 쉼 없이 돌아가고, 내를 따라 작은 부락들이 웅기종기 늘어선 그 옛날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청계리를 둘러싼 언덕과 고갯길엔 희미하게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

청계에서 어천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엔 오래 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선 돌무덤이 있었다.

별다른 표식도 없이 그저 덩그러니 솟은 돌무덤엔 그 옛날의 이야기가 남아 전한다.

이 길에서 그만 목숨을 버린 새색시의 사연이 그것이다. 오래 전 이 일대엔 신부가 아이를 낳아야만 ‘신랑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한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친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만 병이 들고 말았다. 약을 써도 효험이 없자 부모는 죽기 전에 신행이라도 보내고자 서둘러 신부를 가마에 태웠는데 불행히도 신부는 이 고개에서 명을 다하고 만다. 신부의 부모는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되기로 한 몸이니 신부의 시신을 신랑집에 들여달라’고 했지만 신랑집에서는 끝내 신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옥신각신 끝에 결국 신부는 고갯길 한 구석에 묻히게 되었다.

그 후 신랑은 다시 장가를 들어 첫날밤을 맞게 되었는데, 새 신부의 꿈에 죽은 색시의 혼령이 나타나 “내 남편을 너에게 줄 수 없다”며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계속되는 악몽에 새 신부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던 남편의 집에서 용한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 굿을 끝낸 무당은 신부의 원한을 풀기 위해선 고갯길을 넘는 사람은 누구나 돌을 하나씩 던져 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신랑의 가족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하였고 마침내 산더미같은 돌무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때부터 이 고개는 ‘신행당 고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고갯길에서 외롭게 죽어갔던 이름 모를 신부의 모습이 돌무덤과 겹쳐 보인다.

## 10. 정당매와 윤리야매

허름한 마을 가운데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네 갈래로 뻗어 오른 줄기가 남달리 우람하지만 곳곳에 톱날에 베인 상처가 선연하다. 오직 하나의 줄기에서만 겨우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얼마의 시간을 버텨 온 것일까. 나무는 흡사 허리가 굽은 채 지팡이를 짚은 노인 같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찢기고 할퀴 자국이 그대로 드러난다. 도시에도, 이곳 지리산 자락에서도 매화나무는 심심찮게 보아왔지만 이런 예사롭지 않은 모습은 처음이다.

시선은 자연스레 매화 앞에선 비석을 향한다. ‘정당매’.

당당한 풍모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다. 2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밑동이 그 옛날의 건장함을 증명하고 있다. 이 나무는 고려 말기, 뛰어난 문신이었던 강희백 선생이 어린 시절 단속사에서 학문을 닦던 중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이름도 선생이 지냈던 ‘정당문학’이라는 벼슬에서 따온 것이다. 사대부에 버금가는 작위 덕분일까, 누각까지 거느린 나무에선 기품이 느껴진다.

그 옛날 매화는 지금처럼 흔히 널린 나무가 아니었다. 마을을 통틀어 기껏해야 동네 어귀에 한두 그루, 사대부집 뜰 안에 한두 그루가 전부였다고. 천민들은 매화를 감히 심지도 즐길 수도 없었는데 이는 매화에 대한 선비들의 유난스런 사랑 때문이었다. ‘매화는 평생을 चु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고 했던가. 눈 속에서도 곳곳이 서서 희고 맑은 꽃을 피우는 매화는 선비들에겐 ‘지조와 기개’를 가르치는 엄중한 스승이었으리라. 그리고 때론 은은한 향기로 공부에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더 없는 벗이었으리라.

*우연히 옛 고향을 다시 찾아 돌아오니*

*한 그루 매화 향기 뜰 안에 가득하네*

*무심한 나무지만 옛 주인을 알아보고*

*눈 속에 팔을 벌려 은근히 반기네*

옛 친구와 재회한 기쁨에 마음이 벅차올랐던 것일까, 오랜만에 고향에 들른 강희백 선생은 ‘정당매’ 앞에 시까지 한 수 지어 올렸다고 한다. 그 후로 600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정당매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서 자신을 찾는 발길을 맞아주고 있다.

이 땅에서 이방인을 맞아주는 것은 비단 정당매뿐만은 아니다. 정당매의 기운이 퍼져나간 것일까, 마을엔 유난히 매화나무가 많다. 정당매 위쪽 오솔길 너머에 우뚝 선 한 그루 매화가 눈에 띈다.

‘윤리야매’. 윤리 마을에 선 야생매화다. 누군가 거름을 주지도 가지를 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를 키워 온 나무. 지리산 기슭에 몸을 부비며 비바람을 견뎌온 매화의 강인함이 땅을 타고 전해지는 듯하다.

뜰 안에 선 정당매가 선비의 풍모라면 들판에 선 윤리야매는 민초의 모습을 하고 있다.

봄날의 ‘윤리’를 떠올려 본다. ‘정당매와 윤리야매’가 어울려 만발한 광경이 눈앞에 떠오른다. 사대부 매화와 야생의 매화가 어떠한 차별도 편견도 없이 일구어낸 거대한 꽃밭. 우리가 살고 싶고 만들고 싶은 세상이 어찌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 11. 단속사지

지리산 줄기가 긴 팔을 늘어 둥그렇게 만든 품 안에, 서로 닮은 두 개의 탑이 서 있다. 다툼 끝에 토라져 등을 돌린 쌍둥이의 모습 같아 슬며시 웃음이 난다. 어째 낮이 익다 싶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크기가 작긴 하지만 생김새가 불국사의 석가탑을 빼어 박았다. 그런데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있어야 할 자리엔 살림집들만 늘어서 있다. 신라시대에 지어져 조선시대까지 천 년의 역사를 유지했던 '단속사'는 빈 터에 한 쌍의 탑만을 초연하게 남긴 채 사라지고 없다.

어떤 이는, 오랜 영화에도 단속사가 이렇다 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그 이름 탓이라 말한다.

선녀가 베를 짜는 모습을 하고 있다하여 옥녀봉이라 불리는 아담한 산 아래 동지를 틀 당시만 해도 단속사는 지금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금계사가 단속사의 원래 이름이었다. 선녀가 짜 내린 고운 비단의 물결 위에 앉은 사찰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 덕분인지 금계사는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 땅에서도 유난히 번창한 절이었다고 한다. 저 건너 흐르는 남사천을 따라 40분 쯤 걸어가면 '광제암문'이라 써놓은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곳이 단속사의 입구였다니 지금의 마을 전체가 사찰이었다는 얘기가. 절을 한 바퀴 돌아 보고 가면 짙신이 닳아 없어졌다고 할 정도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큰 절집이니 만큼 찾아드는 신도도 적지 않았는데, 이 많은 신도들이 바로 금계사의 이름을 바꿔버린 장본인들이었다. 밥때가 되면 쌀 씻은 드물이 냇물을 따라 저 멀리 청계마을에 이를 정도로, 금계사를 드나드는 사람의 수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번성했던 사찰이 어째서 사라진 것일까?

노상 복새통을 이루었던 사찰의 분위기가 조용한 구도의 공간을 찾아들어온 스님들에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주지스님은 공여지책으로 절의 이름을 '단속사'로 바꾸게 되었다.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다'는 스님들의 의지 때문이었을까, 이름을 바꾸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리하게 인연을 끊으려 했던 것이 오히려 화를 부른 것인지, 불교가 숭상받았던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단속사는 끊임없는 수난에 시달리게 된다. 유교를 세우고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왕조가 닥치는 대로 사찰을 없애려 했기 때문이다. 워낙에 크고 영험한 사찰이었기에 단속사는 그 와중에도 명맥을 유지하긴 했지만 한없이 초라한 사찰로 전락하고 말았다.

**"솔 아래 천년 옛절이 창연한데 사람이 한 마리 학을 따라 찾아드니, 중은 굶어서 부엌이 싸늘하고 금당은 낡아 구름에 파묻혔네. 부처 앞 향로에는 불도 꺼져 오직 재처럼 식은 마음을 보네"**

당시 남명 조식 선생이 단속사에 들렀다 남긴 시구에서 천년 역사의 무상함이 전해진다. 황량한 눈길로 절터를 돌아보는데 눈두렁 너머 빠죽이 솟은 한 쌍의 돌기둥이 보인다. 절을 표시하는 깃발을 걸었던 당간지주다. 그 옛날 하늘을 찌를 듯 드높았던 단속사의 자부심이 저기 저 기둥을 타고 펠럭였으리라. 부러져 뒹굴던 윗부분을 땀질해 붙여 놓은 지금의 모습이 부끄러운 듯, 단속사 당간지주는 소나무 숲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

단속사를 떠나며 우리의 천 년 후를 떠올려 본다. 천 년은 커녕 십 년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쉽게 바뀌어 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 내딛는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 12. 다물 민족학교

드문드문 차가 지나가는 길가에 솟을대문이 서 있다.

아스팔트길이 놓여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골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 으리으리하게 들어선 저 문은 뭘까? 현판을 읽어본다. ‘다물 민족교육원’. 이름만 보아서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쉽사리 짐작이 가지 않는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이밀고 안쪽을 바라보니 널다란 마당 너머로 나지막한 단층 건물이 길게 누워 있다.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한 무리의 중년 남녀들이 하하호호 이야기꽃을 피우며 지나간다.

*“역수로 오랜만이네. 교가 불러보는 거.”*

*“니 학교 다닐 때는 맨날 가사 틀리가꼬 저짜 저기서 벌셨다 아이가. 근데 오늘은 어째 맞게 부른다.”*

*“야! 풍치! 니는 쪼매난 게 가마 있어라. 니는 어째 학교 다닐 때랑 키가 똑같노.”*

학창시절 이야기에 신이 난 그들의 눈길이 솟을대문 안쪽을 향하고 있다. 아, 그리고 보니 영락없는 시골 학교의 모습이다. 폐교가 된 시골학교들이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뉴스는 심심찮게 보고 들었는데, 이곳도 그 중 하나인 듯싶다.

1965년, 입석국민학교 윤리분교로 문을 연 이 학교는 마을 사람들이 손수 힘을 모아 만들어낸 곳이었다고 한다. 전쟁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던 궁핍함. 지겹디 지겨운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아이들을 가르쳐 출세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편이었다.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잘 가르치면 지금의 가난을 물려받지는 않으리라, 마을 사람들은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며 한 줌 두 줌 곡식을 모아 이 학교를 세웠던 것이다. ‘배워야 산다’는 말은 그렇게, 당시 이곳 사람들에게겐 뼈에 사무치도록 절실한 구호였다.

들끓는 교육열 덕분이었을까, 시골분교로 시작한 학교는 80년대에 들어선 학생 수가 500명에 가까운 어엿한 초등학교로 거듭났다. 하지만 북적이는 아이들로 들썩이던 시절은, 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학교는 다시 분교로 격하되었다가 결국 93년에 폐교가 되고 말았다. 가난을 넘어서기 위해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더 풍요한 삶을 위해 도시로 떠났고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기 때문이다. 이 학교가 키워낸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양아간 것이다. 수십 년 전 학교를 세운,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이들만이 마을에 남아 학교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둘레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떠나버린 학교들을 떠올려본다. 더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더러는 옛 모습을 잃었지만 그들이 숨을 멈춘 것은 아니다. 폐교는 마을 기업으로, 예술가의 작업실로, 때로는 이런 새로운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다시 한 번 현판을 올려다본다. ‘다물’은 순우리말로 ‘되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다. 무엇이 이 시골마을에 힘찬 숨결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 둘레길이 내어 준 숙제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난다.